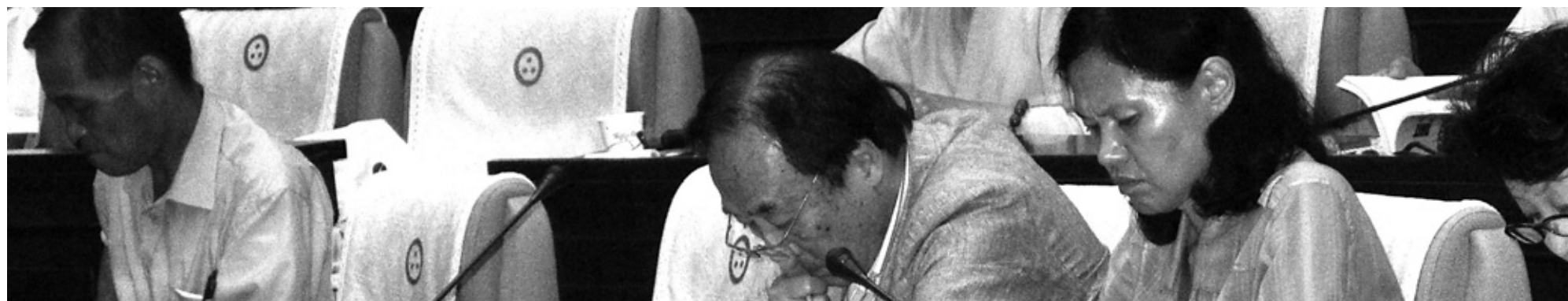


# 불교는 우리에게 어떤 종교인가?



## 계간 '불교평론' 주최한 2011 학술심포지엄서 논의

한국인의 정신과 삶 속에 불교는 어떤 비중과 역할을 하고 있을까. 종교이지만 철학이자 가치관이며 문화현상인 불교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듣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불교평론(주간 홍사성)이 9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인에게 불교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학술심포지엄에서는 일상생활, 미술, 철학, 정치 등 각 분야에서 바라보는 불교의 역할에 대한 입장이 발표됐다.

이번 학술심포지엄은 2011년 만해축전의 마지막 일정으로 6월 이후 문학·종교·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어져 온 학술 심포지엄의 대미를 장식하는 행사다.

이날 학술심포지엄에서는 김용덕 한양대 국문과 교수, 강우방 일한대 국미술사연구원장, 이종찬 동국대 명예교수 등 불교계 안팎의 학자들이 한국인에게 갖는 불교의 의미와 일상 속 불교의 흔적, 불교 미술과

종교 간 교류 및 고대의 정치·교적 측면들까지 짚으며 한국인의 의식 밑바탕에 깔린 불교적 가치관과 역할을 재평가 했다.

### #불교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김용덕 한양대 국문과 교수는 '일상의 삶에서 만나는 불교'에서 "한국인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강한 종교심성이 흐르고 있다"며 "그중 불교는 백성들의 종교로서 정신적 요람의 자리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김용덕 교수는 언어와 습속에 있는 불교를 고찰하며 "불교사상은 한국의 문화원형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불교를 떠나서 한국문화를 논하기 어렵다"고 평했다.

김 교수는 "먼저 한국인의 생사 우주관 형성에 불교가 큰 영향을 미쳤다. 자기가 서있는 곳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신화적 개념은 불교를 만나 불국토 사상으로 발전하였고, 생사는 극락왕생의 윤회사상으로 전이됐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불교의 자시신앙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상대신앙에 대한 이해의 태도는 어느 나라에 전파되더라도 고유신앙과 융합해 그

의식 속 불교 가치관 재평가 일상부터 고대 정치까지 점검 생사 우주관 형성 불교 영향 지식·예술 전수 기능 수행

나라 문화 원형을 이루는데 공헌했다"며 "도착신앙과 융합한 한국불교의 유형에서 그 내용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석길암 금강대 HK연구교수는 구술의 전통과 전설, 신화에 섞인 불교 이야기를 분석하며 한국문화에서의 불교의 역할을 짚었다.

석 교수는 "불교는 민중의 삶 속에 다가 용화불교 등의 형태로도 나타나고, 무속과 융합하여 한국인의 종교적 심성을 울렸다"고 말했다.

석 교수는 "우리는 한국불교 전통의 범주를 스스로 너무 좁혀 파악하고 있다"며 "불교는 더 이상 근원적 사유세계를 대체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구성하는 요소로 재평가돼야"고 평했다.

불교평론 편집위원인 조은수 서울대 교수도 "불교는 전통세계에서 철

학적 지평이었다. 불교의 수양론은 동양사회의 인간 완성에 방향성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위원은 "특히 불교 역할 중 주목할 것은 지식 전수자로서의 역할로 경전 뿐만 아니라 예술과 문학작품을 통해 그 문화에 기여한 점"이라며 불교의 역할이 종교를 넘어 민족문화 창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 #불교는 생활화 나서야

서정형 박사(서울대 철학과)는 불교에 대한 통계자료가 허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 박사는 "종교 관련 통계자료를 훑어보며 느낀 것은 불교는 미신적이라는 오해와 편견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 박사는 "과학적 도구로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잘못된 신념 체계로 보는 경우가 많다"며 "불교 신앙행태 속의 일부 비합리적인 요소에 선입견을 형성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 박사는 "종교를 믿는 가장 큰 비중이 마음의 행복이며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인의 종교관이 현실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며 "현세

적인 삶에 있어 불교생활화를 통해 보다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평가 속에 사회 대안 활동으로의 불교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아졌다. 불교민속학 박사인 구미래 동국대 외래강사는 '불교 내세관의 특성과 현대사회의 불교' 발제에서 "사십구제 천도제 등의 의례 속에서 드러나는 불교의 생사관은 중생구제와 현세개혁으로 불교에는 또 다른 역할이 주어졌는데 바로 승려들의 현실참여가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박사는 "불교 의례와 같이 국민 스스로 공동체 문제에 성찰하는 계기를 갖도록 하는 방향으로 불교계는 사회문제에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현 동국대 명예교수도 '신라 불교의 정치·교적적 기여' 발제에서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에서 불교의 전염성상 사상은 그 기반을 제공했다"며 "전염성상 사상이 정법에 의한 통치는 왕을 위한 것이 아닌 민중을 위한 것인 만큼 현대 불교계는 그 정신을 살리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 "불교 안에 안주하면 亡한다"

박광서 교수, 범불교도 3주년 기념대회서 주장



"불교는 문화재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한국문화 유산의 보고다. 이러한 점이 불교로서는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 불교 안에 안주하면 안된다."

### 박 대표 "자성·쇄신 미흡"

사회 방향타 역할 부족해

국가 예산 투명성 강화와

신뢰 가능한 태도 지녀야

문화계 다수 보유는 '위협'

"신뢰 받는 종교로 노력을"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대표(사진)는 8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범불교도대회 3주년 기념세미나에서 불교의 자성과 쇄신의 움직임이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2008년 범불교도대회 이후 종교평화에 의미 있는 변화가 진행됐다고 진단하며 사회역량 강화는 더 나은 도약을 위해서는 불교계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광서 대표는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불교가 얼마나 한국사회의 방향타 역할을 하고 있는지 회의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사회각각이 열려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교수는 "불교계는 문화로서 역할을 강조하며 각종 문화재와 관련한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문화와 종교 사이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며 "문화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불교로서는 불교문화유산이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특히 예산이 투명히 집행되도록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국고지원 대상과 규모의 적정성 여부나 사후 평가 등

은 해당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종교계도 세금을 내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수년전 여론조사에서 '성직자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견이 89%나 되었지만 종교계 반대에 정부에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와 함께 "공직자의 종교편향이 계속되고 있음에 지적하고 종교편향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불교계가 노력해야 한다"며 △종교 패거리 문화 청산 △종교인권 관련 헌법조항 개헌 △종교법인법 제정 △종교평화헌장 제정 △보편적 종교교역 강화 등 종교평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정부예산 집행과 관련해 토론회자들의 불교계 독립성과 투명성 제고에 대한 목소리가 모아졌다.

조성택 고려대학교 교수는 "불교는 탄압받는 것이 아니라 보호받고 있다"며 "템플스테이 예산 때문에 흔들리는 모습이 아니다"고 말했다.

조현 한겨레신문 종교 전문 기자도 "평상시 승가대학과 불교대학에서 사회교육을 통해 준비해야 한다. 불교 대 기독교의 대립적 관점으로 가기보다는 사회화합을 위해 대안제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前 해인사 승가대학장 법진 스님은 "승단에 종교평화와 관련된 것을 전하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러한 자리가 승가의 사회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불교와 의학 융합연구 본격화 된다

### 불교융합연구 한국연구재단 지원사업 최종 선정

불교에는 유난히 치유와 관련된 교리가 많다. 불교 교리가 심신치유에 적용되는 의학 기법이 본격적으로 연구된다. 또 그 기반 철학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된다.

한국연구재단은 8월 31일 2011년 학제간융합연구지원사업으로 '심신치유의 프로토타입 구축을 위한 불교와 사상의학(四象醫學)의 융합 연구'와 '마음챙김명상(MBSR)의 암

에 대한 신체건강 치유효과'를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불교와 사상의학'은 3년간 5억 2789만원, '마음챙김 치유효과'는 1년간 4989만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불교와 사상의학'은 동국대 분당병원 사상체질학과 박성식 교수가 이끄는 연구회가 주축으로 불교 교리에 서 의학과 관련된 부분을 도출해 사상의학이 지닌 동양철학과 융합한다.

특히 연구회는 '마음챙김(Mindfulness)을 중심으로 불교 수행론 중 체질에 따른 수행 유형을 도출해 사상의학의 사상체질과 결합시킨다. 역으로 사상체질 별 불교 수행의 방법론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

충북대 심리학과 이봉건 교수가 이끄는 '마음챙김 치유효과'는 암 치료의 보완대체요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마음챙김 명상치유의 효과에 대해 연구하는 프로젝트다. 노덕현 기자

## 중국, 불교 한국서 배워갔다

### 낙산사서 한중수행체험교류

한국과 중국불교 남자들이 함께 모여 양국 수행 풍토를 체험하는 교류행사가 8월 29일~9월 5일 7박 8일 일정으로 양양 낙산사에서 펼쳐졌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의장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와 중국불교협회는 8월 29일 낙산사에서 한중수행 체험교류 입재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류 행사에는 중국의 각 성에서 선발된 40여 스님이 참가해

간화선 실참과 염불수행 등 다양한 한국불교 수행을 체험하고 신승사와 월정사 등을 순례했다.

한중수행체험교류는 중국선불교 복원을 위해 중국불교협회의 요청으로 1998년부터 매년 한국과 중국의 주요사찰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낙산사 주지 무문 스님은 "한국과 중국 승가의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 양국 수행풍토 중진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추석명절 차례(茶禮) 시연법회

조상님과 윗사람을 공경하는 예절을 본받고자 저자거리 바른 법 쉬운 포교원인 '열린선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2011년 추석명절 차례특강 및 다보법회"를 봉행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①자주 모여 바른 일을 의논하고, ②공명정대하고 윗사람을 공경하며, ③예의를 존중하고, ④부모를 효도로 섬기고 어른을 존경하며, ⑤조상의 유업 잇기에 노력하고, ⑥도덕적이며, ⑦수행자를 공경하고 계율을 지키며 바르게 생활하는데 부지런한 나라는 절대 약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장아함 유행경)



◆날 짜 : 2011년 9월 7일 19:00

◆장 소 : BBS 불교방송 3층 법당 (5호선 마포역 4번 출구)

◆내 용 : 제 1부 차례특강 및 축사 제 2부 차례시연

서울 은평구 갈현동 역촌중앙시장 열린선원 전화 문의 : 02)386-4755

http://cafe.daum.net/buruna21

한국 불교 태고 종 열린 선원

## 진옥스님께 듣는

(入菩提行論)

## 적천보살의 입보리행론

티벳불교는 4대 교파로 이루어져 있고 모두가 금강승의 밀교를 수행한다. 그리고 4대 교파 모두가 금강승의 밀교 수행에 들어가기 위해 대승의 보리심과 자비의 보살수행을 닦지 않고서는 절대로 밀교수행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취할 수 없다는 공통된 주장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승의 보리심과 자비의 보살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지침서가 필요한데 적천보살께서 대승의 보리심과 자비의 보살수행을 위해서 입보리행론을 가르치셨고 이는 티벳불교 4대 교파의 공통적 지침서가 됐다.

적천보살께서는 인도 나라다 대학의 학장으로서 도를 이루신 큰 스승이시며 무엇보다도 티벳 불교의 근본스승 중 한분이다. 이 소중한 대승논전을 1년간 중심포교원에서 설명하고 사부대중과 함께 수행 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인연으로 인하여 사부대중의 수행에 보탬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텐진 로셀 진 옥 합장



- ▶장 소 \_ 서울 방이동 중심포교원
- ▶일 시 \_ 2011년 9월 14일부터(매주 수요일 10시~12시, 1년간)
- ▶대 상 \_ 누구나
- ▶수 강 료 \_ 없음
- ▶문 의 \_ (02)422-3588(중심포교원)

☉ 대한불교조계종 중심포교원 주지 범하 합장

